



**‘가마솥 더위’ 도심 피서**      입추(立秋)인 7일에도 광주·전남 지역의 낮 최고기온이 36도까지 치솟는 ‘가마솥 더위’ 기승을 부리면서 무더위를 잊기 위해 영화관을 찾는 시민들이 크게 늘고 있다. 이날 오후 광주 서구 광천동 유스퀘어 내 영화관을 찾은 관람객들이 상영시간을 기다리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광주 전세 아파트 씨말랐다

수년째 신규 주택공급 안돼... 전세가율 전국 최고

집값 넘어선 전세값 속출... ‘반월세’ 거래 물량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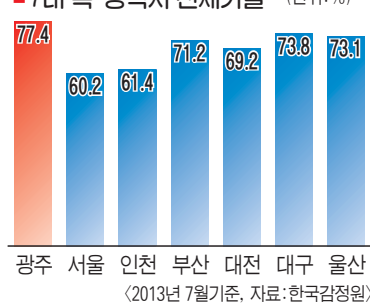
“집값 하락이 걱정되니 전세로 몰릴 수밖에요. 전세는 구경도 못하는 데다 전세값이 집값을 넘어간 아파트도 있어요.” (광산구 한 공인중개사)  
광주지역 주택 전세시장이 이상 기류를 보이고 있다. 전세 매물이 품귀 현상을 빚으며 전세값이 치솟는 가운데 전세값이 집값을 넘어서는 아파트가 나오는가 하면 전세금에 더해 월세를 추가로 내는 반월세 아파트도 부지기수로 늘었다.

7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7월 기준 광주의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은 77.4%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광산구는 무려 80.4%로 전국 자치구 중 1위다. 집값이 1억원이라면 전세값이 8000만원이라는 말이다. 서구도 78.4%로 전국 3위 수준이다.

전세값이 하늘로 솟으면서 매매가보다 비싼 아파트도 속출했다.

국토교통부의 올 2분기 아파트 싼 거래가 자료를 보면 광산구 월계동 모아아파트 95㎡는 지난 4월 전세값이 1억4000만원이었다. 하지만 매매가는 5월 1억3000만원을 기록했다. 전세가격이 1000만원이나 더 비싼 것이다. 북구 매곡동 서강프라자 59㎡는 4월 8400만원에 매매됐지만 같은 달 전세값은 9000만원이었고, 호남2차아파트 59㎡도 4월 전세가격이 9500만원이었는데 6월 매매가는 9100만원이었다.

전세값이 집값을 뛰어넘은 것은 수년 간 원활하지 않은 아파트 공급 때문이다. 광주지역은 2000년대 중반 이후 미분양 물량이 넘쳐나면서



건설사들이 신규 물량을 장기간 공급하지 않았다. 이후 미분양이 줄어든 대신 신규 분양에 몰려야 할 매매 수요가 전세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전세값을 폭등시키고 있는 것. 여기에 화정동 유니버시아드 선수촌이 완공되면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해 전세만 찾고 있는 시장 특수성도 맞물렸다.

실제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광주지역 전세값은 지난 2011년 16.2%가 올라 전국에서 충북(16.3%) 다음으로 상승했으며 지난

해 3.25%, 올들어 7월까지의 2.73%가 올랐다.

전세값 상승은 반월세 물량도 크게 늘리고 있다. 광산구 신창동 신가부영 85㎡의 경우 2011년 4월 전세값은 7000만원 수준이었지만 올 4월에는 8820만원으로 오르면서 차액을 월세로 전환하는 가구가 늘어났다. 기존 전세값이 오르자 상승분을 감당하지 못한 세입자가 전세금을 보증금으로 돌리고 추가로 월세를 내는 것이다. 이 아파트는 같은달 6800만원의 보증금에 27만원의 월세를 내는 반월세로 거래됐다.

광산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이러한 ‘올(all) 전세’는 한 달에 한 건 구경하기조차 힘들다”며 “간혹 매매가 되지 않아 전세로 나오는 물건이 있는데, 집값에 맞먹는 가격에 나와 순식간에 빠져나가는 반면 집을 사려는 사람이 없어 매매시장은 아예 조용하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영·호남 잇는 섬진강 교량 3개나 있는데 또 다리 추진

## 동서통합 ‘전시 행정’ 되나

정작 도움 되는 남해안KTX·한려대교는 외면

남도대교 등 대형 교량만 3개나 되는 섬진강에 정부가 동서통합을 상징하는 또 다른 다리를 건설하는 계획을 추진해 ‘전시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공약인 ‘동서통합시대 프로젝트’의 시범사업으로 정작 영호남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남해안철도고속화나 한려대교 등 대형 사업은 외면한 채 예산이 적은 섬진강 다리 건설을 우선 추진해 이들 지역의 반발도 예상된다.

〈관련기사 3면〉

7월 전남도와 경남도 등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동서통합 프로젝트 시범사업으로 430억원을 들여 광양시 다압면 고사리와 하동군 약양면 평사리를 잇는 동서통합교량(길이 372m·폭 13.5m) 건설을 추진한다.

이 다리는 동서 통합의 상징성을 담고 있는 랜드마크 역할을 하게 되며, 섬진강 일대의 관광 명소를 연결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동서통합교량 인근에는 이

미 영호남을 연결하는 남도대교(길이 358.8m·13.5m), 섬진교(420m·15.5m), 섬진대교(700.4m·18.5m) 등 대형 다리만 3개나 된다. 철도 전용인 섬진철교와 영호남을 잇는 남해고속도로의 교량들까지 포함한다면 섬진강 인근에 건설된 교량의 수는 더욱 늘어난다. 〈그래픽 참고〉

섬진강 상류에 위치한 남도대교에서 하류의 섬진대교까지는 직선 거리로 29km 남짓인데, 이 구간에 동서통합교량까지 들어선다면 다리로서의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 광양시 도시교통 중기 계획상 동서통합교량의 하루 예측교통량은 2015년 5250대, 2025년 6208대에 불과하다.

동서통합교량 건설 발표에 따라 여수·광양 지역의 공단과 영남지역을 연계해 산업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는 한려대교(여수시 낙포동~남해군 서면 연결·길이 4.2km) 건설을 요해 온 지자체의 실망감도 크다.

한려대교가 완공되면 현재 1시간 30분 이상 걸리는 두 지역 간 이동시간이 10분대로 단축, 양 지역의 물류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지만 정부가 한려대교 건설 요구에는 귀를 닫고 있는 셈이다.

한편 이날 여수시·남해군은 남해군청에서 관련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한려대교 조기건설 실무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다음달 여수시에서 공동추진위원회 발족식을 열고, 한려대교 조기건설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할 계획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개성공단 7차회담 14일 개최될 듯

北 제안에 정부 수용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제7차 실무회담이 오는 14일 개최될 전망이다. 북한은 7일 제7차 실무회담을 오는 14일 개성공단에서 개최하자고 우리 정부에 전격 제안했고, 정부가 이를 곧바로 수용하면서 폐쇄 수순으로 가던 개성공단 사태가 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관련기사 5면〉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저녁 긴급브리핑에서 “정부는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당국 간 대화 제의에 북한이 전향적으로 나온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당국간 회담은 북측이 제안한 대로 14일 개성공단에서 개최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7차 회담의 수석대표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우리 측에서는 김기용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이, 북측에서는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총국 부총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나설 예

정이다. 이에 앞서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이날 대변인 특별담화에서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제7차 실무회담을 오는 14일 개최하자고 우리 정부에 제안했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긴급 브리핑을 통해 8일부터 개성공단 기업에 대한 경험 보험금 지급 결정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폭·염·경·보**  
**화순 36.8도**  
**올들어 최고**  
▷ 관련기사 7면

2013학년도 후기  
**광신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추가모집**  
■ 원서접수 : 8월 5일(월) - 16일(금)  
입학문의    대학원 062)605-1115  
                 학부 062)605-1114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제3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야구대회**  
2013. 9. 1~11. 17 (매주 토, 일요일 경기진행)  
광주·전남 지역 지정구장

- 참가팀수 : 천왕·지왕·인왕·호남 토너먼트 각16개팀(총 64개팀)
- 각 토너먼트의 선수 구성
  - 천왕 토너먼트 : 선수출신 등록할 수 없음 - 주민등록상 40세 이상은 비선수로 인정(1974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
  - 지왕 토너먼트 : 선수출신 등록할 수 없음 - 주민등록상 45세 이상은 비선수로 인정(1969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
  - 인왕 토너먼트 : 선수출신 등록할 수 없음 - 주민등록상 45세 이상은 비선수로 인정(1969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
  - 호남 토너먼트 : 선수출신 등록할 수 없음 - 주민등록상 45세 이상은 비선수로 인정(1969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

\* 자세한 내용은 대회 홈페이지를 참고바랍니다.

| 주 최 | **광주일보사**  
| 주 관 | 광주광역시야구협회  
|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광주광역시생활체육회, 전라남도생활체육회  
| 지 원 | 경륜·경정 적립금  
| 문 의 | http://www.kwangju.co.kr, 062-220-0541